

주체조선의 국력과 인민의 지향을 생동하게 반영한 예술적형상

평양 열음 조각축전 - 2018을 보고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가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들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창조하며 향유하는 나라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는 평양열음조각축전-2018이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축전은 지난해보다 규모도 더 크고 전시형식도 특색있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저녁에는 축전장과 잇닿아있는 승려거리의 가로수들이 불장식으로 아름다운 《사리꽃》 야경을 펼쳐놓고 광장에 전시된 열음조각들이 새조명으로 황홀한 모습을 한껏 드러내어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열음축전에는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조선인민군상사들과 평양시안의 여러 구역들과 교육기관 그리고 조각애호가들이 창작한 많은 열음조각들이 전시되였다.

세계적으로 열음을 가지고 조각을 만드는것은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여러 나라들에서 열음조각전시회나 경연을 조직하고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처럼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조국의 눈부신 현실과 사회주의생활의 참다운 모습을 열음조각으로 형상하여 전시하는, 그야말로 인민이 창조하고 인민이 향유하는 아름다운 열음의 세계는 그 어디에도 없다.

평양열음조각축전-2018은 우리 주체조선의 기상과 존엄, 무진막강한 국력이 그대로 반영된 오늘의

시대의 축소판이었다.

백두산은 내 나라의 기상을 안고 있는 조종의 산이며 혁명의 성산이다. 축전장에는 백두밀림속에 웅건장중하게 솟아있는 정일봉과 떠오르는 아침배를 형상한 열음조각과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열음조각이 전시되였다. 특히 백두산의 해돋이를 형상한 열음조각은 천지회반과 태양, 밀림에 대한 색조명을 보장하여 그 예술성을 한층 더 높여 주었다.

축전에는 투명하게 맑은 열음으로 소나리와 참배를 형상한 《아침의 나라》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다.

열음조각축전에는 세계 2018년이 얼마나 영광넘친 해인가를 조형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열음조각들도 전시되였다.

공화국창건 70돌이 되고 조선

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 데로부터 70돌이 되는 올해를 공화국기와 70이라는 글발을 가지고 형상한 열음조각을 보면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올해에 모든 부름, 모든 전진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승리의 광장에 떼뿔이 들어설 길을 다져 주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2018년을 확실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강령은 국가계획위원회와 제헌성에서 전시한 열음조각들이 그대로 반영되였다. 김일성, 김정일화를 형상한 열음꽃바구니조각과 펼쳐진 부채모양의 열음벽에 《2018》이라는 글말이 부각되고 새해인사를 하는 남녀어린이를 형상한 열음조각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인민들의 기쁨을 잘 보여주었다.

축전장에는 수도건설위원회와 건설재정공업성에서 내놓은 려명거리 열음조각도 있었다.

하늘을 지붕으며 일떠선 려명거리의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생동하게 형상된 열음조각들을 무심히 볼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당시 정혜준 시대에 당시 바라는 놀이에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조각작가들은 려명거리조각에 《조선속도창조》, 《자력자강》이라는 글말들과 건설재정공업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식조각도 함께 형상하여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을 잘 반영하였다.

이번 열음조각축전에는 민족사적 대승리인 대륙간관도 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와 관련한 조각들이 적지 않게 전시되였다.

최근작에는 수도건설위원회와 건설재정공업성에서 내놓은 려명거리 열음조각도 있었다.

하늘을 지붕으며 일떠선 려명거리의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생동하게 형상된 열음조각들을 무심히 볼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당시 정혜준 시대에 당시 바라는 놀이에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조각작가들은 려명거리조각에 《조선속도창조》, 《자력자강》이라는 글말들과 건설재정공업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식조각도 함께 형상하여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을 잘 반영하였다.

이번 열음조각축전에는 민족사적 대승리인 대륙간관도 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와 관련한 조각들이 적지 않게 전시되였다.

최근작에는 수도건설위원회와 건설재정공업성에서 내놓은 려명거리 열음조각도 있었다.

하늘을 지붕으며 일떠선 려명거리의 특색있는 건축물들이 생동하게 형상된 열음조각들을 무심히 볼 수 없었다. 여기에는 당시 정혜준 시대에 당시 바라는 놀이에서 려명거리를 훌륭히 일떠세운 건설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조각작가들은 려명거리조각에 《조선속도창조》, 《자력자강》이라는 글말들과 건설재정공업의 위력을 보여주는 장식조각도 함께 형상하여 우리 조국의 불패의 기상을 잘 반영하였다.

이번 열음조각축전에는 민족사적 대승리인 대륙간관도 로케트 《화성-15》형시험발사와 관련한 조각들이 적지 않게 전시되였다.

수매량정성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삼지연갑자가무생산공장과 갖가지 갑자가무가공품들을 형상한 열음조각을 내놓았다.

축전에는 이밖에도 꽃속에 물린 여러가지 《은하수》화장품들을 형상한 열음조각과 갖가지 만든 책가방을 메고 즐겁게 학교로 가는 학생을 형상한 열음조각도 전시되어 사람들에게 우리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일깨워 주었다.

이번에 성, 중앙기관들에서 내놓은 열음조각들은 당정책이 정확히 반영되고 조형예술적으로 호소성이 강하게 형성됨으로써 열음의 위기가 들고나가는 할 혁명적주요 《혁명적인 총동맹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의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였다.

평양열음조각축전-2018은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이 지닌 뜨거운 조국애와 함포에 그리고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준 사랑과 열정의 절정체였다.

이번에 시안의 여러 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개신문과 조국해방전정승리기념관의 승리상을 무개이고 생동하게 형상하였으며 평양출판인쇄총합대학의 학생들은 항일유격대의 나팔수를 형상한 열음조각을 내놓아 혁명선열들의 넋을 꿇듯이 이어 사회주의의 나라를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이번 열음조각축전은 예술적수준에서도 지난 시기에 비해 수준이 더 높아졌다.

내 나라의 자랑인 신선로와 고성고려인상열음조각의 질감을 조명으로 적극 살린것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창조적수익이었다. 열음조각축전에는 유치원어린이가 내놓은 사과바구니열음조각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열음조각을 창작하여 축전에 참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수준을 엿보게 된다.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의 문화적소양이 끊임없이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열음조각축전은 앞으로도 계속 최첨단의 열음의 세계를 펼쳐게 될것이다.

차 수



평양열음조각축전-2018은 또한 김정일애국주의를 따라배우고 구현해나가는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이 지닌 뜨거운 조국애와 함포에 그리고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준 사랑과 열정의 절정체였다.

이번에 시안의 여러 구역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개신문과 조국해방전정승리기념관의 승리상을 무개이고 생동하게 형상하였으며 평양출판인쇄총합대학의 학생들은 항일유격대의 나팔수를 형상한 열음조각을 내놓아 혁명선열들의 넋을 꿇듯이 이어 사회주의의 나라를 빛내어갈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이번 열음조각축전은 예술적수준에서도 지난 시기에 비해 수준이 더 높아졌다.

내 나라의 자랑인 신선로와 고성고려인상열음조각의 질감을 조명으로 적극 살린것은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의 창조적수익이었다. 열음조각축전에는 유치원어린이가 내놓은 사과바구니열음조각도 전시되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열음조각을 창작하여 축전에 참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오늘날 인민들의 높아가는 문화수준을 엿보게 된다.

눈부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인민의 문화적소양이 끊임없이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우리의 열음조각축전은 앞으로도 계속 최첨단의 열음의 세계를 펼쳐게 될것이다.

차 수

비약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만포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크나큰 격동속에 접한 만포시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과 연구자들이 가슴 벅찬 투쟁으로 이겨내며 지난해를 감회있게 돌이켜보고있다. 지난 2017년은 이들에게 있어서 시안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큰 의의를 가지는 많은 과학기술성공들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은 강성국가건설을 추동하는 원동력이며 과학기술발전이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일군들과 연구자들은 인민생활과 직결되어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철박하게 해결을 기하려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과학연구활동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자기 고장에 발을 든듯히 붙이고 높은 세계를 내다보면서 힘찬 투쟁을 벌인 결과 좋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연구사 황영호동무가 새로 연구한 식물성장촉진제는 물과 열

로를 절약하고 영농공정을 훨씬 앞당기면서도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어 유기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큰 의의를 가졌다.

만포시에 무진장하게 매달려있던 금강야들과 민박식을 비롯한 유용광물들 기본정보를 하여 만든 이 식물성장촉진제는 북부산간지대에서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10~15일이나 앞당기면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담보할수 있는 우리 식의 식물성장촉진제로서 이미 만포시를 비롯한 자강도의 여러 지역들에서 그 경제적효과성이 뚜렷이 확증되였다.

지난 시기에 리용하던 수입원료를 전혀 쓰지 않으면서도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흡수율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는 이 식물성장촉진제는 우리 나라 북부산간지대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농장들에서도 리용할수 있어 그 전망성이 대단하다.

자강도를 잠입도, 비단도로 만들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자강도에서 인민생활을 높이자면 잠입을 증시하여야 한다고 확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실천해 새기고 연구사 리광일동무는 고심하던 탐구를 벌려 자재의 힘과 기술로 종전보다 많은 풍일을 절약하면서도 누에고치의 질과 수확고를 확고히 높일수 있는 새로운 누에먹이첨가제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새로 만들어진 누에먹이첨가제를 만포시와 조선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도입한 결과 누에고치 생산량을 훨씬 높이고 병발생률을 훨씬 낮출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였다. 뿐만아니라 누에치기에서 난문제로 되고 있던 여러가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서 큰 전진을 가져온것으로 하여 생산자들속에서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생산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연구사 림순길동무가 연구개발한 종자피복제와 리영준동무가 연구한 북부산간지대에서의 메기양어기술, 시과학기술위원회의 원형전 기계관동무가 연구한 여드름방지크림과

그 제조방법 등 많은 과학연구성과들이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이 된다고 하신것은 연구사들의 긍지를 높이고 도와 전국적인 과학기술혁신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만포시과학기술위원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은 과학기술을 통하여 시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따라 좌우된다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자기 손으로 거머잡고 자기 고장을 사회주의력원으로 전면시작하기 위한 만포시인민들의 총진군대의 앞장에는 이렇듯 비약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선구자들인 만포시과학기술위원회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서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장에서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의 구절구절을 심장에 새기고 이들을 뜻깊은 울레에도 새로운 성과들을 더 많이 안아오기 위한 작전을 동원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성민

《최근 몇해사이 우리 산골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달라보게 일선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년판산 일군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성년판산 은곡고급중학교 고척분교 분교장의 말이였다.

그는 땅의 교육증시상을 받들고 평안의 일군들이 후천단계들의 역할을 높여 분교를 중심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에 교육을 증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각급 학교후원단체들이 지원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땅의 교육방침관철에 열쳐나서도록 당적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성년판산에서는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고척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선시키기 위한 당과 교의 토의였다.

당조직에서는 진지한 협의끝에 분교의 후천단계로 은수강을 선정하였다. 이 강으로 말하면 생산에서 뒤지러를 몰랐고 판산으로 전투력이 강한 단위로 알려져있었다.

그리하여 경일군들은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달려붙였다. 분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 우선 지붕을 교체하기로 하였다. 당면생산을 보장하

면서 동시에 분교꾸러기를 내밀어야 하는 일은 수월치 않았다.

분교꾸러기에 헌신하도록 광부들의 심정에 불을 달았다.

지용공사를 위한건에 결속한 강에서는 연속적인 공격으로 분교대부를 개건하는데 모를 박았다. 차호철, 차원삼등세로위원장도 학생들이 출선 미장갑을 들고 갔었다. 그들은 리일도 붙이고 출입문들도 전부 새로 만들었다.

그러하여 교실들을 고친의 모습을 그리자 집일처럼 여가사.

이렇게 되어 강에서는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루고 분교꾸러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광부들은 힘바에는 보란듯이 철관공을 써우자고 하면서 앞을 닦으며 펼쳐나갔다. 대중의 양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정남성장은 현

행생산조직을 그 어느때보다 짜고교이 한사람이 뒤뚱하면 분교의 토의에 헌신하도록 광부들의 심정에 불을 달았다.

지용공사를 위한건에 결속한 강에서는 연속적인 공격으로 분교대부를 개건하는데 모를 박았다. 차호철, 차원삼등세로위원장도 학생들이 출선 미장갑을 들고 갔었다. 그들은 리일도 붙이고 출입문들도 전부 새로 만들었다.

그러하여 교실들을 고친의 모습을 그리자 집일처럼 여가사.

이렇게 되어 강에서는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루고 분교꾸러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광부들은 힘바에는 보란듯이 철관공을 써우자고 하면서 앞을 닦으며 펼쳐나갔다. 대중의 양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정남성장은 현

현상에서도 그대로 깃들었다. 그뿐이 아니다. 판산의 한 일군은 분교의 명세만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었으며 강분초급당위원장은 컴퓨터도 마련해주었다.

이런 마음과 마음에 떠받들려 분교의 모든 교실들을 다그쳐나워 교실로 꾸리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였다.

지난해 일군들은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책상과 의자, 교탁들을 새것으로 마련해주고 칠판도 마련해주어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에 전진전력할수 있게 하였다.

고척분교 분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것은 후천단계들이 학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선시키기 위한 사업을 단순한 실무적사업이 아니라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을위한다는 관념과 필자성이 책임감으로 해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이였다.

특기기자 오철훈

《최근 몇해사이 우리 산골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달라보게 일선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년판산 일군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성년판산 은곡고급중학교 고척분교 분교장의 말이였다.

회의에서는 고척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선시키기 위한 당과 교의 토의였다.

현상에서도 그대로 깃들었다. 그뿐이 아니다. 판산의 한 일군은 분교의 명세만을 모두 새것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었으며 강분초급당위원장은 컴퓨터도 마련해주었다.

평양산원에서

《독독독》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레사름에 여기는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 하여 우리의 심금을 두들기며 울려주는것인가.

평양산원에 입원한 녀성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문두드리는 이 소리에 저도모르게 정이 든다. 담담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정성고도 살뜰한 문안인사로부러 서는 의사들이 인간애의 하부하부는 따뜻한 정성의 연속으로 이어지는것이였다.

이제까지 읽고나니 한 교육자의 가슴속을 격격하게 불어넣어준 문두드리는 소리의 의미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새해의 첫인상 평양산원 4부인과 입원실에 펼쳐진것은 이세로운 평강이 되새겨졌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날기 바랍니다.》라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먼저 찾아와 환기로운 꽃부음을 안겨 줄 때 환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자기 가정에서 준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까지 펼쳐놓으며 어서빨리 건강을 회복하라고 구부러주니 환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섰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평양산원에만 펼쳐진 환복이랴.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해의 첫인상 기쁨이, 사랑이, 행복이 문물 두드린다.

우리는 또 다른 환복의 편지

《독독독》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레사름에 여기는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 하여 우리의 심금을 두들기며 울려주는것인가.

평양산원에 입원한 녀성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문두드리는 이 소리에 저도모르게 정이 든다. 담담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정성고도 살뜰한 문안인사로부러 서는 의사들이 인간애의 하부하부는 따뜻한 정성의 연속으로 이어지는것이였다.

이제까지 읽고나니 한 교육자의 가슴속을 격격하게 불어넣어준 문두드리는 소리의 의미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새해의 첫인상 평양산원 4부인과 입원실에 펼쳐진것은 이세로운 평강이 되새겨졌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날기 바랍니다.》라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먼저 찾아와 환기로운 꽃부음을 안겨 줄 때 환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자기 가정에서 준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까지 펼쳐놓으며 어서빨리 건강을 회복하라고 구부러주니 환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섰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평양산원에만 펼쳐진 환복이랴.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해의 첫인상 기쁨이, 사랑이, 행복이 문물 두드린다.

우리는 또 다른 환복의 편지

인간사랑의 따듯한 화원

《독독독》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레사름에 여기는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 하여 우리의 심금을 두들기며 울려주는것인가.

평양산원에 입원한 녀성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문두드리는 이 소리에 저도모르게 정이 든다. 담담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정성고도 살뜰한 문안인사로부러 서는 의사들이 인간애의 하부하부는 따뜻한 정성의 연속으로 이어지는것이였다.

이제까지 읽고나니 한 교육자의 가슴속을 격격하게 불어넣어준 문두드리는 소리의 의미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새해의 첫인상 평양산원 4부인과 입원실에 펼쳐진것은 이세로운 평강이 되새겨졌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날기 바랍니다.》라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먼저 찾아와 환기로운 꽃부음을 안겨 줄 때 환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자기 가정에서 준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까지 펼쳐놓으며 어서빨리 건강을 회복하라고 구부러주니 환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섰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평양산원에만 펼쳐진 환복이랴.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해의 첫인상 기쁨이, 사랑이, 행복이 문물 두드린다.

우리는 또 다른 환복의 편지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헌신의 자욱

성년판산에서

《독독독》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레사름에 여기는 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어찌 하여 우리의 심금을 두들기며 울려주는것인가.

평양산원에 입원한 녀성들은 누구나 할것 없이 문두드리는 이 소리에 저도모르게 정이 든다. 담담의사들과 간호원들의 정성고도 살뜰한 문안인사로부러 서는 의사들이 인간애의 하부하부는 따뜻한 정성의 연속으로 이어지는것이였다.

이제까지 읽고나니 한 교육자의 가슴속을 격격하게 불어넣어준 문두드리는 소리의 의미가 더욱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새해의 첫인상 평양산원 4부인과 입원실에 펼쳐진것은 이세로운 평강이 되새겨졌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옥동자를 날기 바랍니다.》라고 의사들이 환자들을 먼저 찾아와 환기로운 꽃부음을 안겨 줄 때 환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일군들이 자기 가정에서 준비한 특색있는 명절음식까지 펼쳐놓으며 어서빨리 건강을 회복하라고 구부러주니 환자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 눈물이 앞섰다고 한다.

이것이 어찌 평양산원에만 펼쳐진 환복이랴. 우리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해의 첫인상 기쁨이, 사랑이, 행복이 문물 두드린다.

우리는 또 다른 환복의 편지

《최근 몇해사이 우리 산골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이 달라보게 일선되였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성년판산 일군들의 남모르는 노력이 깃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성년판산 은곡고급중학교 고척분교 분교장의 말이였다.

그는 땅의 교육증시상을 받들고 평안의 일군들이 후천단계들의 역할을 높여 분교를 중심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온 사회에 교육을 증시하는 기풍을 세우고 각급 학교후원단체들이 지원사업을 강화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땅의 교육방침관철에 열쳐나서도록 당적으로 밀어주어야 합니다.》

몇해전 어느날 성년판산에서는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고척분교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선시키기 위한 당과 교의 토의였다.

당조직에서는 진지한 협의끝에 분교의 후천단계로 은수강을 선정하였다. 이 강으로 말하면 생산에서 뒤지러를 몰랐고 판산으로 전투력이 강한 단위로 알려져있었다.

그리하여 경일군들은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달려붙였다. 분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일군들은 우선 지붕을 교체하기로 하였다. 당면생산을 보장하

면서 동시에 분교꾸러기를 내밀어야 하는 일은 수월치 않았다.

분교꾸러기에 헌신하도록 광부들의 심정에 불을 달았다.

지용공사를 위한건에 결속한 강에서는 연속적인 공격으로 분교대부를 개건하는데 모를 박았다. 차호철, 차원삼등세로위원장도 학생들이 출선 미장갑을 들고 갔었다. 그들은 리일도 붙이고 출입문들도 전부 새로 만들었다.

그러하여 교실들을 고친의 모습을 그리자 집일처럼 여가사.

이렇게 되어 강에서는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루고 분교꾸러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광부들은 힘바에는 보란듯이 철관공을 써우자고 하면서 앞을 닦으며 펼쳐나갔다. 대중의 양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정남성장은 현

행생산조직을 그 어느때보다 짜고교이 한사람이 뒤뚱하면 분교의 토의에 헌신하도록 광부들의 심정에 불을 달았다.

지용공사를 위한건에 결속한 강에서는 연속적인 공격으로 분교대부를 개건하는데 모를 박았다. 차호철, 차원삼등세로위원장도 학생들이 출선 미장갑을 들고 갔었다. 그들은 리일도 붙이고 출입문들도 전부 새로 만들었다.

그러하여 교실들을 고친의 모습을 그리자 집일처럼 여가사.

이렇게 되어 강에서는 다른 일들을 뒤로 미루고 분교꾸러기에 총력을 집중하였다. 광부들은 힘바에는 보란듯이 철관공을 써우자고 하면서 앞을 닦으며 펼쳐나갔다. 대중의 양양된 투쟁열의에 맞게 정남성장은 현

독자의 편지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리영철 총원당위원회 부위원장도 바로 그런 일군들중의 한사람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제가 방안에서 책을 읽고있었는데 군당위원회에서 찾아왔다며 낯모를 일꾼이 문을 들어서서것이였습니다. 리영철부위원장이었습니니다. 초면이었지만 뜨거운 인정을가 흘러넘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친형육을 대하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의 손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독자의 편지》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는 어머니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길에 자신의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리영철 총원당위원회 부위원장도 바로 그런 일군들중의 한사람입니다.

몇해전 어느날 제가 방안에서 책을 읽고있었는데 군당위원회에서 찾아왔다며 낯모를 일꾼이 문을 들어서서것이였습니다. 리영철부위원장이었습니니다. 초면이었지만 뜨거운 인정을가 흘러넘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친형육을 대하는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의 손을

정말이지 쉽지 않은 일군이었고 진부모와도 같은분이였습니다. 남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여기고 친형육의 정으로 위해주는 이런 훌륭한 인간들을 만날 때마다 세상에 물든다고 하는 이교마다 세대를 위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의 꽃을 더 활짝 피워나갈 불같은 마음을 다지켜 줍니다.

언제나 인민을 위한 열사복부의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바쳐가는 이런 훌륭한 일군을 키워준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송원국 음 93인민반 김철명

양력 설을 즐겁게 쇠고 있는 수도의 근로자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라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땅에 인민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린다. 곳곳

에서 인민들을 반겨주는 유희장과 볼거리가 넘쳐나고 있다. 온 나라가 기쁨과 흥분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인민들은 웃음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새해의 첫날인 오늘도 온 나라가 기쁨과 흥분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인민들은 웃음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새해의 첫날인 오늘도 온 나라가 기쁨과 흥분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인민들은 웃음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새해의 첫날인 오늘도 온 나라가 기쁨과 흥분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인민들은 웃음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원수들은 미친듯이 발악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 즐거이 달려가는 인민이다. 새해의 첫날인 오늘도 온 나라가 기쁨과 흥분으로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다. 인민들은 웃음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다.

세상에 부럼없는 말은 결코 물질적부가 넘쳐난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껏 향유한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터운것이 없어야 부러움이 없다. 지난해에 우리 공화국은 마칠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보다도 되돌릴 수 없는 강령적이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뚫고 대

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된다고, 미국은 결코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조국과 인민앞에 그리고 세계앞에 엄숙히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처럼 온 나라 인민이 감격의 절정, 기쁨의 무아경에 잠겼다. 우리 인민의 웃음에는 바로 이렇듯 누구나 바란다고 해서

가질 수 없는 것, 억대의 자원이 있다고 해서 살 수도 없는 평화와 민영의 억만단보를 마련하였다는데서 오는 크나큰 희열이 있다. 여기에 우리는 인민의 웃음 넘친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한다. 위대한 당의 구상과 결심은 곧 과학이며 실천이라는 것을 역사의 실험으로 간직한 우리 인민은 올해에도 당이 제시한 전 투목표수행에서 세인을 놀라게

는 기적적 승리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일념으로 인민은 혁명적인 총풍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할 것이며 인민의 믿음과 힘을 의거하여 우리 당은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 오고야말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명절 분위기를 흥성 이는 수도의 거리



— 로 락 락 어 관 에 서 —



—대성구역 흥동2동 131인민반에서—

새 해와 더불어 피어난 웃음꽃

사리원시 상매 1 동에서 사는 신음선로인의 집을 찾아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충실하여온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것은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새해 전날부터 사리원시 상매 1 동에서 사는 신음선로인의 집은 활기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는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을 맞이하듯 반가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사리원시 상매 1 동에서 사는 신음선로인의 집은 활기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는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을 맞이하듯 반가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들은 때없이 로인의 집을 찾곤 하는 사람들이었다. 년로한 몸이지만 새 세대들과의 상봉모임에 자주 출연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굳이 정을 심어주는 그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활력에 넘쳐 즐거움과 나눔을 보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음선로인의 집을 찾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군자리에서 싸운 그를 만나면 매년 귀환한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신음선로인은 여든이 넘었지만 아주 정중하고 활기차게 하였다.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자리에서 기관총과 탄약을 팔 팽 생산해내던 처녀선반공의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는듯 그의 목소리는 다기차고 정중하였다. 로인은 새해를 맞이하며 반가운 손자들이 많이도 찾아온다고, 군자리 로동조합의 공지와 명예가 더욱 커진다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머느리니 리춘화동무에게 이 글 써달라 하여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 중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러나 로인이 60여년세월 간수해는 줄임과 성취가 아닌가. 신음선로인은 새해가 올 때마다 이 중서들을 대한 추억이 자꾸만 갈마든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파 학업성적증명서입니다. 그 중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러나 로인이 60여년세월 간수해는 줄임과 성취가 아닌가. 신음선로인은 새해가 올 때마다 이 중서들을 대한 추억이 자꾸만 갈마든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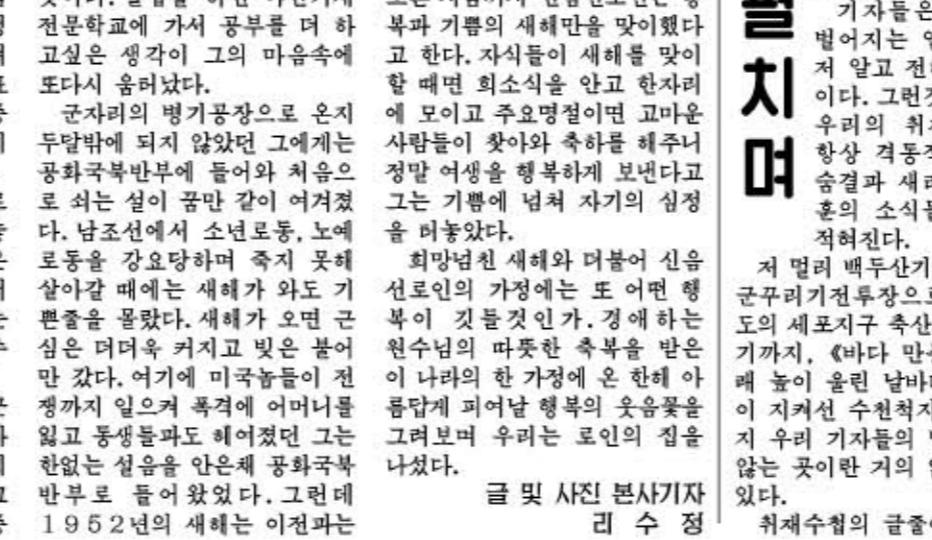
판이하였다. 착취도 압박도 없는 새 사회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환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신음선로인의 가슴속에 그 들머리 차올랐다. 어머니수령님의 사망의 조치에 의하여 신음선로인은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마음껏 배우고 기술을 익혔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살모없이 버림받은 한 인간을 따듯이 품어안아 보배기술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내세워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사망을 잊을수가 없어 군자리에 있던 야간기계전문학교의 졸업증을 가보처럼 간직하였던 것이다.

분명 가벼운 한장의 종이이지만 새 취재수첩의 생각이 깊어진다. 지난해 나라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마지막 때까지 가득 채운 취재수첩을 신뜻 펼칠수 없었던것처럼... 지난해 누구나 가지고있을 크지 않은 그 수첩이 예 이리도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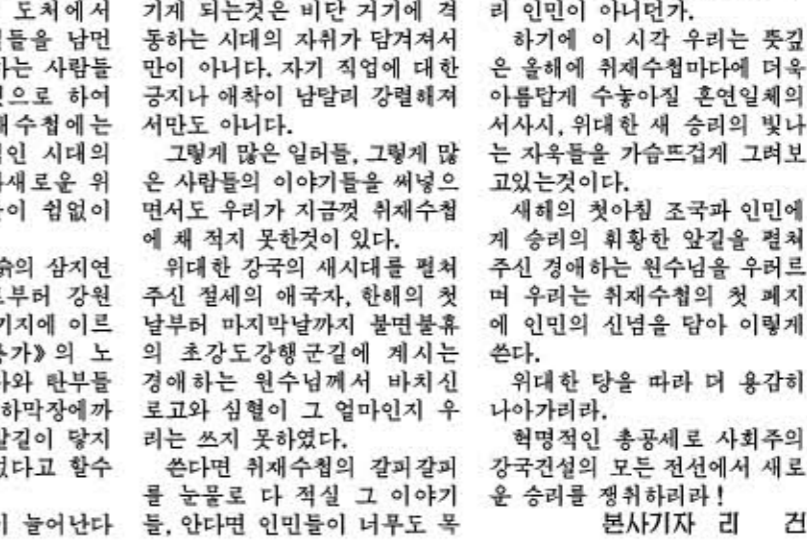
이 메아리 울려 잠 못 이룰 이야기들은 과연 그 얼마나.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대승리들을 면하여 안아오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이 그 얼마나 깊고 긴 길인 줄이야 얼마나 험난하였는가를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민은 신심대로 걷고 가고 자신의 행보같은 꼴대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태양처럼 밝은 미소만큼 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상에서 제일로 우리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니,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 한목숨도 서슴없이 내내내보시라는것을 너무도 잘 안다. 바로 이렇듯 고맙고 위대한 어머니의 정을 가슴에 간직하였기에 그 어떤 시련의 한탄산악이 앞을 막아나서도 그리도 억척같이, 용감히 뚫고헤치는 우리 인민이 아닌가. 여기에 이 시각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취재수첩마다 더욱 아름답게 수놓이신 현인연대의 서사시, 위대한 새 승리의 빛나는 자욱들을 가슴뜨겁게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



명절 분위기를 흥성 이는 수도의 거리



— 로 락 락 어 관 에 서 —



—대성구역 흥동2동 131인민반에서—

보람의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

평양시인민위원회

우리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활기 넘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온 김철우동무를 비롯한 평양시인민위원회 아예단 위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소상하고 이끄는 교사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사뭇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철우동무가 사업하는 기업소는 그리 크지 않다. 그나마 대부분이 녀성 종업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수도의 경영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시간의 영예를 인민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 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영예군인들을 돕는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용감한 일로 되고있다. 소장 김철우동무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몇몇몇 김철우동무는 어느 한 병원에서 우연히 한 영예군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충실하여온 혁명선배들을 존중하는것은 후대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새해 전날부터 사리원시 상매 1 동에서 사는 신음선로인의 집은 활기 넘치는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는 아들, 딸, 사위, 손자, 손녀들을 맞이하듯 반가움을 금치 못해 하였다. 그들은 때없이 로인의 집을 찾곤 하는 사람들이었다. 년로한 몸이지만 새 세대들과의 상봉모임에 자주 출연하여 그들의 가슴속에 굳이 정을 심어주는 그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활력에 넘쳐 즐거움과 나눔을 보며 그 아름다운 마음을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음선로인의 집을 찾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군자리에서 싸운 그를 만나면 매년 귀환한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신음선로인은 여든이 넘었지만 아주 정중하고 활기차게 하였다. 가말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군자리에서 기관총과 탄약을 팔 팽 생산해내던 처녀선반공의 기쁨이 여전히 남아있는듯 그의 목소리는 다기차고 정중하였다. 로인은 새해를 맞이하며 반가운 손자들이 많이도 찾아온다고, 군자리 로동조합의 공지와 명예가 더욱 커진다고 감격에 겨워 이야기하였다.

우리가 머느리니 리춘화동무에게 이 글 써달라 하여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그 중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러나 로인이 60여년세월 간수해는 줄임과 성취가 아닌가. 신음선로인은 새해가 올 때마다 이 중서들을 대한 추억이 자꾸만 갈마든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해주었다.

판이하였다. 착취도 압박도 없는 새 사회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환희가 새해를 맞이하는 신음선로인의 가슴속에 그 들머리 차올랐다. 어머니수령님의 사망의 조치에 의하여 신음선로인은 전쟁이 한창일 때에 마음껏 배우고 기술을 익혔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살모없이 버림받은 한 인간을 따듯이 품어안아 보배기술자로, 조선로동당원으로서 내세워 주신 어머니수령님의 사망을 잊을수가 없어 군자리에 있던 야간기계전문학교의 졸업증을 가보처럼 간직하였던 것이다.

분명 가벼운 한장의 종이이지만 새 취재수첩의 생각이 깊어진다. 지난해 나라의 방방곡곡을 누비며 마지막 때까지 가득 채운 취재수첩을 신뜻 펼칠수 없었던것처럼... 지난해 누구나 가지고있을 크지 않은 그 수첩이 예 이리도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이 메아리 울려 잠 못 이룰 이야기들은 과연 그 얼마나. 반만년민족사에 특기할 대경사, 대승리들을 면하여 안아오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이 그 얼마나 깊고 긴 길인 줄이야 얼마나 험난하였는가를 우리는 미처 다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인민은 신심대로 걷고 가고 자신의 행보같은 꼴대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태양처럼 밝은 미소만큼 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세상에서 제일로 우리 인민을 귀중히 여기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니,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지켜 한목숨도 서슴없이 내내내보시라는것을 너무도 잘 안다. 바로 이렇듯 고맙고 위대한 어머니의 정을 가슴에 간직하였기에 그 어떤 시련의 한탄산악이 앞을 막아나서도 그리도 억척같이, 용감히 뚫고헤치는 우리 인민이 아닌가. 여기에 이 시각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취재수첩마다 더욱 아름답게 수놓이신 현인연대의 서사시, 위대한 새 승리의 빛나는 자욱들을 가슴뜨겁게 그려보고 있는 것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

우리의 생활은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무엇보다도 활기 넘치는 것이었다. 우리는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온 김철우동무를 비롯한 평양시인민위원회 아예단 위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소상하고 이끄는 교사로 고귀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사뭇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철우동무가 사업하는 기업소는 그리 크지 않다. 그나마 대부분이 녀성 종업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그에 의거하여 수도의 경영사업에 이바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시간의 영예를 인민들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듯이 돌봐주고 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영예군인들을 돕는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용감한 일로 되고있다. 소장 김철우동무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몇몇몇 김철우동무는 어느 한 병원에서 우연히 한 영예군인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있어서 영예군인들을 돕는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용감한 일로 되고있다. 소장 김철우동무의 경우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

평범한 생활속에 비춰진 김철우동무의 아름다운 모습은 이곳 종업원들에게 마음의 거울로, 말없는 교양으로 되었다. 기업소안의 청년동맹원들도 락양구역에서 살고있는 영예군

인의 생활을 친절하게 돌봐주고 있다. 청년동맹초급단체비서 김은하동무를 비롯한 청년동맹원들은 나라에서 보배로 내세우는 영예군인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영예군인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때없이 찾아가 건강은 어떠한가, 재기되는것은 없는가 등 생활의 구석구석을 보살필 때면 영예군인의 눈가에 저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고이군 하였다. 영예군인이 대동강구역에서 살 때에도 그리고 락양구역으로 이주한 후에도 그를 위하여 이곳 청년동맹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고 이어서 이어지는 정은 나날이 더욱 뜨거워만 갔다. 이런 아름다운 생활속에 뿌려진 이 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사업은 그대로 동만한 결실로 이어졌다. 자기 어려에 대한 약속을 안고 이 곳 종업원들은 맑은 설비들을 애호관리하여 26호모범 기업예예상을 쟁취하였고 모범체육단위, 모범법단위의 영예를 빛내어 주었다.

하기에 우리와 만난 소장 김철우동무는 귀여우고 내세워준 어머니당을 기억시키나 보답하고 싶을것이 자기만이 아닌 종업원들모두의 건강같은 심정이라고 진정히 믿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엔제리 보람의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 바로 사회와 집단을 위한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을 줄 아는 이런 훌륭한 인간들이 이 땅 그 어디 가나 아름다운 꽃이 되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그처럼 아름다워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생기를 잃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는 것이다.

《농업기상》 프로그램을 리용하면 기상예보와 기온, 강수

이밖에도 지방발전기예보와 중기예보, 15일경향예보보문과 월예보, 계절예보보문 등을 받아볼 수 있으며 기상정보도 시가지적절하게 송신 받아 사용자들이 농업생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농작물생육예보로 사용자들이 리용하기 편리한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화일로 보 관할수도 있다.

이곳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농업기상자료를 우리 나라 행정구역 리 단위로 구성하여 사용자는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에 해당 농업기상자료를 전면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특색있는 손전화용 농업기상전문프로그램 《농업기상》은 농업부분을 비롯한 여러 부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호평속에 널리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리명희

인류력사에 빛나는 위인의 업적

여러 나라에서 행사 진행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주에 즈음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에리트리아에서 지난해 12월 5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회고모임이 진행되었다. 모임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발인자들은 김정일동지처럼 투철한 명도성과 고결한 인간적품성을 지닌 위인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다. 그는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강고히 버티신 참다운 인민의 명도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김정일동지의 서거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있어서 커다란 상상이었다고 하면서 이기에서는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다 합당히 경모하는 위대한 명도자요 영생하신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은 경모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일동지처럼 투철한 명도성의 유혹을 철저히 판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정책적으로 이끌고계신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의 현실을 결실한 수령의 명도성을 받들어 크지 않은 나라와 민족도 강국으로, 위대한 인민으로 된다는 진리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김정은동지의 명도자가 있어 조선인민은 앞으로 승리할 수 있으며 번영하는 미래에 보람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주

탁월한 명도성에 조선인민이 이복하고있는 기적적인 성과들은 전세계를 경탄시키고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다.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진적 지지

인터넷에 특집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주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단체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의 기간에 인터넷홈페이지에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분, 《인민을 위해 바치신 헌생》 등의 제목으로 특집하고 글을 게재하였다.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죽음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조선의 김정일명도자께서는 한평생 이민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으셨다. 이기에서는 인민들의 편이로 최우선, 절대하시였으며 그에 저촉되었는 사소한것도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의 뜨거운 인민사랑을 전하는 전갈은 이야기들을 다 말하지만 끝이 없을것이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리성을 불피우기 위한 헌신적노력에 계셨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인 2011년에 도 위임없는 헌신적노드를 이끌어 가셨다.

위대한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정력적인 혁명활동으로 사회주의건설과 주체혁명의위수행에서 혁사적전환을 이룩하셨다.

만남시련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조선의 현실은 김정일명도자의 업적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정일명도자께서는 선군정치로 사회주의기본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끊임없는 군현지시찰을 통하여 조선인민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셨다.

그이의 선군위업은 드림없이 세승되고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는 한편 사회주의강국건설업무를 빛나는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여러 나라 인사를 격찬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6주에 즈음하여 진보적인류는 사회주의위업, 인류사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의인연의연필할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이런 알다시피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은 김정일동지는 풍부한 사상적지식, 감성적지각, 풍부한 혁명실적으로 나라와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가장 훌륭한 명도자이시라, 그녀는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격찬하였다.

이탈리아총무장관 루리사 장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을 인류역

매일조선학생소년예솔단 단장 적정 도로

경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선선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집합전진성 제일조선학생소년예솔단 단장이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회합한 새해 주제 107(2018)년에 즈음하여 하신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선선사를 무한한 격정속에 집합전진성 제일조선학생소년예솔단 단장이 격동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북과 남, 해외에 사는 민족성원모두에게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주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영성을 비오며 송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선선사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김정은명도자의 선선사는 조국부강, 인민번영의 화로를 밝혀준 불멸의 대장, 승리의 기치이다.

신년사에는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존엄과 위업을 더 높이 떨치시려는 결세위인의 확고한 결심과 위대한 구상이 절대성되어있다.

자자구구 금욕같은 문구들로 일관된 선선사의 구절구절을 새겨놓은 조국통일사도 한들기의 눈부신 년문을 아로새길 용대한 절세지도가 눈앞에 펼쳐지며 올해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진다.

지난해 조국의 군대와 인민은 미중유의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만만년민족사에 특기할 특대사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미국의 팽창주의 정책 규탄

로씨야연방안보위원회 서기장 지안네 12월 28일 신문 《아르구멘타 이 락타》와의 회견에서 미국의 팽창주의정책을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이 일부 나라들에 의뢰하는 《침략국가들》이라는 강령위에는 경제적으로도 함께

서방의 제재조치 철폐 요구

김바브레아동맹 에머는 유난 가가가 최근 김바브레아프리 카인총동맹-에국선선상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서방의 정치경제적제재정책을 무조건 철폐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을 단죄

수리아의 몇몇 이주민들이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의 야수적인 공습행위를 단죄하는 편지를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안보리사회 의장에 보냈다.

편지는 미국주도의 《반테로련합》전투기들이 데이트 알 주르도의 주민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강행한데 대해 폭로하면서 이를 대항할수있도록 촉구하였다.

같은 사방의 제재조치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있지만 결코 김바브레아를 고립시키지 못했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국내산 반항공공중음속 요격미사일 시험발사 인디아가 지난해 12월 28일 오디샤주에 있는 시험장에서 자체로 개발한 반항공공중음속 요격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이탈리아총무장관 루리사 장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을 인류역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양열발전소 건설 계획

마르코프에서 최근 중부도시 마르코프에 태양열발전소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탈리아총무장관 루리사 장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을 인류역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패용패덕의 범죄집단 - 주일미군

주일미군의 범죄행위 가 또다시 드러나 일본사회계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기나와현에서 택시 운전사의 유가족이 2008년에 당당도행위를 강행한 미해병대원들을 나하계 판소에 고소하였다.

알려진데 의 하면 2008년 1월에 20대안락의 미해병대원 두명이 택시를 타고 거지거리 당도하여 모금을 요구하는 나이지리아인 택시운전사에게 달려들어 목숨을 안기다 못해 그의 머리를 승무원으로 내치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그후파로 병마에 시달리던 끝에 택시운전사는 일차리마져 때우고 비명횡사하였다.

택시운전사와 그의 가족은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일본방위성상선 오기나와방위군을 통하여 미군부에 다섯번이나 피해배상청구서를 들이였지만 미군부는 소용이 없었다.

달리 될수 없는 하수인의 운명

냉군 하인 미국이 이번에는 하수인의 처지가 흉수 가변해있었던 민중을 상대로 흉수 내었다.

이탈리아총무장관 루리사 장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을 인류역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과 학 기 술 소 식

새로운 천은 일반인과 달리 인체의 열을 잡아두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 효과가 면천보다 2배정도 높다.

이탈리아총무장관 루리사 장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을 인류역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미국과 일본에서 만연되는 범죄행위

미국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류형적인 흉기류범죄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탈리아총무장관 루리사 장은 위인이 갖추어야 할 모든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김정일명도자의 업적을 인류역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다. 얼마전 CH-53E대형수송헬기 사고로 발생시켰을 때에도 오기나와현정부가 나서서 미군편리를 호소하였지만 미군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